

恐慌理論認識의 課題

—農業恐慌의 理論的諸問題—

崔 朱 詰

一. 農業恐慌의 意義

農業에 있어서의 不景氣로 말미암아 多數의 農民이 農地를 잃게 되고
或은 農權을 荒廢化로 이끄는 農產物價格構成狀態 그리고 이것으로 부터
結果하는바의 農家收入의 損失狀態가 나타날 境遇 世人은 이것을 農業의
恐慌이라고 부른다. 農業恐慌을 이렇게 概念지을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國民經濟上에 重大한 影響을 주는것임에도 不拘하고 實狀에 있어서는 農
業恐慌現象은 體系的으로 充分히 解明되어있지 않고 다만 農業은 一般景
氣變動 一般恐慌理論을 說明하는 補助手段으로서 引用되고 있는데 不過
하다. 이러한 事情은 農業에 있어서의 資本主義發達이 商工業에 比하여
그다지 喚起되지 않았다는 點 農業經濟가 各其 나라의 다름에 따라서 極
히 많은 特異性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依해서 農業恐慌도 이것을 一義的
으로 把握하는것이 매우 困難한데 基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農業恐慌은 商工業에 있어서의 恐慌一般과 決코 對立的意味에서
存在하는것은 아니다. 農業恐慌을 바르게 解釋하기 爲해서는 恐慌一般의
本質을 바르게 理解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恐慌이라는 것은 一產
業部門만의 特殊한 原因으로부터 發生하는 것이 아니요 「발가」(Varga,
Eugen) 註1)와 같이 資本主義의 全「메카니슴」와는 獨立한 農業獨自의 恐
慌이라는 概念을 가져올 憂慮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農業恐慌論의 課題에 對한 從來의 學者들의 定說을 吟味해 볼
必要가 있다. 「콘라드」(Conrad)는 『農業恐慌이라는 것은 純收益 特히
地價의 騰貴에 對한 反動으로서 이러나는 純收益의 低下 또는 信用의 不足
에 依하여 大多數의 農民의 經濟的存在를 威脅하는 바의 一國의 經濟狀態』

라고 定義하고(註2) 「슈테른슈랏텐호프-헨」(Schullern-Schrattenhofen)은 『農業恐慌이란 農政生活에 있어서 激甚하게 나타나는 疾病狀態이며 農業制度 및 經營의 惡化를 長期的 慢性的으로 이끌어서 一般狀態의 永續的 變革을 惹起하는것이라』고 規定하고있다. (註3) 이렇게 解釋한다고 하면 「베로-」(Below)가 指摘한바와같이 註4) 凶作이나 戰爭等に 依해서 이러한 古代 및 中世에 있어서의 農業의 困窮도 農業恐慌의 範疇안에 包括되게된다. 또 「제-링구」(M. Sering)는 『農業恐慌이라는것은 多數의 農民經濟를 威脅하고 따라서 農權의 荒廢化 農家收入의 損失을 惹起하는 價格의 構成狀態』(註5)라고 概念지우고 있다. 氣象的經濟循環의 宇宙的原因을 主張하는 「제본스나」(W. Stanley jevons)나 10.46년에 一回轉하는 太陽의 黑點을 恐慌의 原因으로 觀察하는 「무-아」(H. L. Moore) 註6 等の 學說을 土台로 東畑教授는 農業恐慌을 自然과 恐慌과의 間聯에 있어서 把握하여 農作物의 豐凶作을 通해서 보는 自然과 農業恐慌과를 結付시켜서 究明하고 있고(註7) 川野重任은 『生産力の 進歩에 있어서의 農工의 比較差』에 農業恐慌發生의 原因을 求하여 『萬若에 農業生産力の 進展 및 復興의 「텐포」가 工業의 그것에 뒤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限度에 있어서 農業恐慌을 準備하고 있다고 할수있으리라』고 하여 恐慌理論을 展開하고있다. (註8) 이러한 諸定義에 接할때 우리는 農業恐慌에對한 概念에 正確性和 一義性を 찾아내지 못하고 同時に 이러한 概念안에 包有되어 있는 經濟的 社會的 歷史的 內容의 極히 多樣함을 看取하게된다.

말할것도 없이 農業恐慌은 價格構成이 農家經濟에 對하여 決定的影響을 주기에 이른 資本主義經濟社會에 있어서 비로소 發生한것이며 따라서 農業恐慌은 價格構成안에 있어서 農家貧窮의 決定的原因을 認定할 境遇에 限하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팔가」의 다음과 같은 說明을 우리는 回顧할수있다. 「팔가」는 『農業恐慌의 基本的原因是 循環的工業恐慌과같이 生産의 社會的性質과 占有的 資本主義的形態와의 矛盾 그리고 이矛盾과 結付되어있는 大衆의 貧困과 購買力の 減少에 存在한다. 이意味에 있어서 農業恐慌은 資本主義的恐慌이요 過剩生産恐慌이다』라고. 이러한 「팔가」

의 見解에 同調하면서 「라시첸코」도 『農業恐慌의 理論은 資本主義의 恐慌의 一般의 理論의 發展위에 있어서 把握되어야 하며 그것은 一般恐慌理論이 提供하는 恐慌의 一般的說明으로 부터 出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農業恐慌理論의 具體的 發展 및 深化를 가져오는 要件으로서 農業의 生産的 社會的 歷史的 諸條件과 그 特殊性을 들고있다. 『그러기 때문에 農業恐慌理論은 資本主義的農業의 抽象的인 純粹理論은 아닌것이요 純粹한 資本主義的諸關係뿐만 아니라 非資本主義的要素 및 非資本主義的形態까지도 包括하는 바의 現實的인 農業資本主義의 具體的理論이 아니어서는 안된다』고하여 農業恐慌理論을 具體的理論으로서 規定하고 있다. (註9) 「류보시쓰」는 또 『農業恐慌은 工業恐慌의 部分恐慌이 아니며 工業恐慌과 함께 存在하는 獨自的인 現象이요 獨特한 根源과 發生 그리고 發達의 法則을 가지고있는 獨自的인 長期恐慌이라는 範疇를 定式化하여 抽象的인 農業恐慌理論을 展開하고 있는것이다. 「류보시쓰」는 1. 農業에 있어서의 部分的恐慌 2. 一般的周期的恐慌의 農業에의 波及으로서의 周期的農業恐慌 3. 獨自的인 長期農業恐慌의 세가지 形態의 存在를 主張하고 『長期農業恐慌의 本質과 獨自性을 完全히 明白히 하고 그發生과 進行의 特殊한 合則性 工業恐慌과 比較對照하여 나타나는 特殊性 특히 慢性이 되는 原因 各段階의 特殊性 長期農業恐慌에 銳敏하게 나타나는 資本主義農業의 矛盾의 複雜한 過程을 明白히 해야하는 것이』農業恐慌理論의 課題라고 規定하고 있다. (註10)

이와같이 農業恐慌을 理解한다고 할境遇 農業恐慌은 農業의 技術的後進性이나 資本主義의 테두리 밖에서 또는 어떠한 特別의 要素의 作用에 依하여 喚起되는것이 아니고 반드시 資本主義社會의 基本的諸矛盾으로부터 發生하는 것이라고 解釋되어지는 것이다.

(註 1) Varga, Fugen: Akkumulation und Zusammen-bruch des Kapitalismus. 1930

Varga 監修 永住道雄 譯 「世界經濟恐慌史」 1937

(註 2) Conrad: "Agrarkrisis,, im Handwörterbuch der staatswissenschaften. 1909

- (註 3) Schullern-Schrattenhofen: Agrarpolitik. 1924
 (註 4) Below: "Agrargeschichte,, im Handwörterbuch der Staatswissenschaften. 1923
 (註 5) Sering: Agrarkrisen und Agrarzöller 1925
 (註 6) H. L. Moore: Economic cycles. Their law and cause. 1914
 (註 7) 東畑精一. 「農權問題の諸相」…恐慌理論に於ける自然の問題
 (註 8) 川野重任. 「農業恐慌論覚え書」…季刊農業問題7號
 (註 9) 「라시첸코」. (直井武夫譯). 「農業經濟學」
 (註10) 「註류보시쓰」. 「農業恐慌理論の諸問題」 1952

× × × ×

農業恐慌이라는것은 農業에 있어서의 資本主義의 發展에 必然的으로 隨伴하는 現象이요 資本主義의 生産 一般에 內在하는 生産과 消費와의 矛盾의 反映인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一國的 個別的것이 아니고 全世界를 包括하는 國際的인 現象이다. 農業에 있어서의 矛盾關係라고 하는 것은 即土地私有權을 意味하는 것이요 이것이 根本原因이 되고 農業의 進化和土地私有權과의 矛盾이 副次的原因이 되어 一般恐慌의 影響下에 農業恐慌이 深刻化하는 것이라고 觀測된다. 이러한 農業恐慌에는 두가지의 過程이 存在한다. 即 그 하나는 土地私有制에 기틀을 두는 弊害가 桎梏化하지 않고 農業에 있어서의 資本主義的經營이 充分히 發達하고 그經營組織이 大體的으로 全國 또는 地方的으로 單一生産物에 專門化해있는것과 같은 나라 및 地方 例를들면 美國 加國 濠洲 「알제진」 「부라질」等에 있어서 는 恐慌의 原動力은 過剩生産恐慌으로서 나타나고 이境遇 資本主義的合理化 即 大經營은 小經營을 驅逐하는 形態를 取하다. 다른 하나는 大農經營規模를 가지는 나라以外的 資主義諸國 및 植民地 半植民地 또는 後進國에 있어서의 農業恐慌은 農業의 資本主義化和 土地私有權과의 矛盾까지도 原因이 되어 發生한다고 하는 點이다. 이境遇 土地獨占의 結果 膨脹하는 地代 또는 利子の 重壓을 從來 騰貴한 價格에 있어서 自國또는 他國의 消費者에게 轉嫁해온것을 價格의 暴落으로 因하여 이것이 不可能하게 된다. 이 價格의 暴落은 一般經濟恐慌에 影響을 받은 過剩生産의 結果이요 一般恐慌의 影響下에 農業恐慌을 深刻化시키는 社會的根據로서 農業生産力

의 發展과 土地私有와의 사이의 矛盾이 存在한다. 그러나 國際的視野에서 본다면 資本主義가 全世界에 있어서의 農業生産에 對하여 그 支配性을 擴大強化해가는 程度에 應해서 從來 一般經濟恐慌을 誘因으로 하던 農業恐慌이 本質的으로는 農業生産의 資本主義化에 內在하는 獨自의 原因에 根據하는 農業恐慌에 轉化해가는 傾向이 看取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와같은 過小農制下에 있어서의 農業恐慌의 根本原因은 農業의 그 零細性이라는데 있다. 即 過小農制下에 있어서는 農業經營의 合理化가 不可能하고 地代 및 地價의 騰貴는 生産費의 低下를 阻止하여 農業資本의 再生産을 妨害하는 까닭에 農業에 있어서의 이러한 潜在的矛盾은 一般恐慌의 影響을 받고 農業恐慌을 誘發시키는 것이라고 믿어진다.

× × × ×

이미 指摘한바와같이 「라시첸코」는 農業恐慌理論을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 非資本主義的要素 및 形態를 包括하는바의 具體的理論이라고 規定짓고 「류보시프」는 農業恐慌은 工業恐慌의 部分的恐慌이 아니라 工業恐慌과 함께 存在하는 獨自의 現象이요 獨自의인 根源과 發生 및 發展의 法則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說明한다. 또 「팔가」는 大衆의 貧困을 恐慌에 直結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慢性的農業恐慌이라고 하는 範疇를 定式化하고 있다. 即 「팔가」는 資本主義生産의 競爭의 結果 資本의 增大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固定資本의 更新과 擴大가 行해져서 第一部門의 生産이 擴充되고 다음에 第二部門의 市場의 擴大되는것에 依해서 資本主義的市場이 廣汎圉하게 形成된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이러한 資本主義生産의 不均等發展(第一部門의 肥大化)이라는 命題에 依하여 第一部門안의 第二部門生産手段의 過剩生産의 顯在化 第一部門의 生産縮少 第一部門의 失業의 增大(消費能力의 激減) 第二部門의 實現不能等の 諸過程을 分析한後 이 第二部門의 過剩生産의 顯在化에 依해서 恐慌은 먼저 第二部門에서 부터 始作한다는 結論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論理는 첫째 「팔가」가 恐慌의 直接的原因을 大衆의 「푸로레타리아」狀態에 求하는것을 一旦 넘어서 不均等發展에 依하여 說明하려고 한데도 不拘하고 結局은 恐慌의 原因을

第二部門의 商品의 受容力의 縮少 大衆의 過少消費에 歸決시켰다고 하는 것을 意味하고 그들째는 農業에 있어서는 農業生産力의 發展과 大衆의 貧困化를 直結하는 것에 依해서 即 恐慌發生의 窮極的 原因을 分析하지 않고 다만 表面上으로만 그것을 直結하는것에 依해서 資本主義經濟의 全「메카니슴」와는 獨立한 農業이라고 하는 一產業部門만의 恐慌이 나타날수 있다고 하는 理論에 發展하는 契機를 內包하고 있음을 意味한다. 따라서 「발가」도 一般恐慌과는 獨立한 農業獨自의 恐慌이 存在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慢性的 獨自의 農業恐慌일지라도 그것은 一般恐慌의 影響을 받고 나타나는 過剩生産의 結果이며 一般恐慌의 影響下에 農業生産力의 發展과 土地私有와의 사이의 矛盾이라는 社會的根據를 기틀로하여 農業恐慌이 深刻해 지는限 特殊한 農業恐慌理論이란 存在할 餘地가 없는 것이다. 이럼에도 不拘하고 事實에 있어서는 從來 一般恐慌을 그誘因으로 하던 農業恐慌이 農業生産의 資本主義化에 內在하는 獨自의 原因에 根據하는 農業恐慌으로 轉化해가는 傾向이 있고 또 「발가」等이 農業恐慌의 獨自性을 主張함은 어떠한 理由에 基因하는것인가?

二. 農業恐慌形態

各國의 史的發展過程에 있어서 農民의 困窮은 無數히 存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農民困窮의 現象을 곧 農業의 恐慌이라고 우리는 보지 않는다. 農業恐慌이라는것은 앞에서도 說明한바와 같이 資本主義의 生産의 發展에 必要的으로 隨伴하는 生産과 消費와의 矛盾 即 過剩生産과 大衆의 貧困 따라서 價格의 暴落에 依한 農民의 「프로레타리아」化의 現象이다. 農業恐慌의 意義를 이렇게 解釋한다고 해서 資本主義下에 있어서의 農民의 貧困은 그以前의 時代에 比하여 보다 頻繁하게 이러났고 보다 深刻하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또 그러한 意義의 農業恐慌을 그대로의 姿態에 있어서 描寫한다고 하는 것도 決코 容易한 일이 아닌것이다. 왜냐하면 農業恐慌은 一般的으로 他의 社會現象과 混淆하고 經濟生活內에 있어서의

外部的攪亂은 農業까지도 一樣的으로 掩襲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社會現象의 轉變은 農業을 特別히 動搖시키기 때문이다. 卽 農產物價格의 低落은 農民에 對해서 한層 苦痛을 주는 것이요 그것은 自然에 拘束되는 農業에 있어서는 變化하는 情勢에 適應한다고 하는 것이 極히 困難하기 때문이다. (註11)

무릇 恐慌이라는 것은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의 生産의 發展에 基하여 必然的으로 發生하는 週期的現象이다. 恐慌이 資本主義的生産恐慌으로서 나타나는 限 그特徵은 市場價格의 平均生産以下에의 暴落에 存在하고 이 暴落은 生産力의 極度の 發展과 一般購買力減少와의 사이의 矛盾에 根據하는 것이며 이矛盾이 恐慌을 發生케하여 所謂 沈滯 上昇 高景氣 生産過剩 恐慌 沈滯 등의 循環運動을 되풀이 하게 하는 것이다.

農業恐慌은 資本主義的恐慌인 限 一般恐慌과 同一한 理論的土台위에 선 다할지도 그것이 形成되는 過程을 一般恐慌을 把握하는 것과 同一한 方法에 依하여 解明해야 할 것인가? 農業은 各國의 環境에 따라서 매우 相異하고 假令 얼마나 高度로 發達한 資本主義國家라 할지라도 農業에는 非資本主義要素가 많이 包含되어 있다. 따라서 資本主義的 農業안에 含有되어 있는 非資本主義的 諸要素 資本主義的 農業의 經營에 있어서 影響받는 非資本主義的 環境을 無視한다면 農業에 있어서의 恐慌의 形成過程은 知悉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農業恐慌理論 그自體도 一般商工業에 있어서의 資本主義進化에 依해서 規律될 憂慮가 있는 것이다. (註12) 그러나 筆者가 이렇게 解釋한다고 해서 그것은 必然的으로 一般恐慌理論의 農業에의 妥當性を 否認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農業恐慌이 農業生産의 資本主義化에 內在하는 獨自의 原因에 根據하는 農業恐慌으로 轉化하는 傾向이 있다던지 或은 「팔가」 「라시첸코」 등이 農業恐慌의 獨自性を 主張했다던지 하는 原因을 農業이 各國의 經濟的發展段階에 應하여 나타내는 바의 諸樣態를 根據로 農業이 商工業에 比하여 가지는 技術的 經濟的 社會的 歷史的 特殊性을 考慮하면서 農業恐慌이 發生하는 個別의 特性和 形態의 分析 있어서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 × ×

一般恐慌은 週期的景氣變動의 一聯鎖로서 比較的 急激하게 나타나고 大
概는 Panic의 形態를 取하면서 規則바른 週期를 形成하여 循環함을 普通
으로 한다. 그러나 農業恐慌은 潛行的 慢性的 狀態로서 나타나는 것이
다. 農業의 이러한 特殊性에 着眼하여 「스토라곳슈」(Strakosch) 註13 는
이것을 農業의 不景氣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農業恐慌의 週期性問題에
對해서는 論者에 따라서 學說을 달리하거나와 卽 그 하나는 「스펙티타
-」 「콘도라체프」 「石液貞雄」等과 같이 農業恐慌을 一般恐慌의 反映現
象이라고 보는것에 依해서 兩恐慌의 週期性을 同一視하는 理論이요, 다른
하나 「스텐스키-」(Studensky) 註14 「발가」 「류보시프」 「라시첸코」等
과 같이 農業恐慌을 機械에 依한 生産力の 發展에 緣由시키기는 하지마는
이技術的變化的 波動을 「콘도라체프」의 所謂 긴週期를 가지는 循環運行의
意味로 解釋하지 않고 조금도 規則的으로 되풀이 되지 않는 發展行程안의
現象이라고 觀察하므로써 農業恐慌의 週期性을 否認하는 理論이다. 前者
의 理論에 依하면 農業恐慌은 一般恐慌과같이 循環性을 가지고 있고 그特
徵은 長期 또는 慢性狀態에 있는것이 아니라 後出性에 있는 것이요 또
처음부터 世界農業恐慌으로서 나타나는데 存在하는 것이라고 한다. 勿論
恐慌의 窮極의 原因은 社會的生産과 資本主義的占有와의 矛盾에 있고 工
業恐慌의 影響을 받아서 農業에 있어서의 이러한 矛盾이 農業恐慌을 惹起
시킨다고 하는限 工業恐慌과 農業과는 同一의 循環法則을 가지는 것이라
고 一旦 말할수는 있으리라. 그러나 恐慌은 앞에서 말한 矛盾이 經濟의
再生産上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規定지을수 있는 以上 社會的生産과 私的
占有와의 矛盾은 經濟現象으로서의 恐慌이 窮極에 있어서 資本主義生産의
基本的 矛盾에 依하여 惹起되는 것이라는 意味에 있어서 恐慌의 窮極의 原
因이 될수있을 지언정 直接的原因是 될수없으며 그러한 窮極의 原因으로
부터 週期的經濟現象인 恐慌을 說明하려고 할 境遇에는 많은 中間過程의
分析이 必要하게 된다. 왜냐하면 恐慌을 絶滅시키기 爲해서는 資本主義
그自體를 또한 絶滅해야 하겠지마는 그러나 恐慌의 克服(그것이 一時的

이라 할지라도)은 資本主義의 基本的矛盾의 恒常性에도 不拘하고 過去에 있어서 可能했기 때문이다. 「말크스」에 依하면 恐慌發生의 中間過程으로서의 前提가 되는것은 資本의 蓄積이요 이것이 資本主義的市場을 一定限界까지 擴大시키고 다음에는 恐慌의 直接的原因으로 轉化한다고 한다. 말 할것도없이 資本의 蓄積形態 및 그進度는 工業과 農業에 있어서 서로 相異하는 樣相을 가진다. 工業에 있어서는 再生産의 循環的進行의 原動力이 되는것은 資本의 蓄積이지마는 農業에 있어서는 이의 支配性에 順應하는 것을 넘어서 農業生産의 資本主義化에 內在하는 獨自의 原因을 胚胎하고 있다. 이獨自의 原因이야말로 農業恐慌을 特殊化시키는 條件이 되고 同一한 週期성을 否認케 하는 理論的土台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何故로 農業恐慌은 그러한 特殊性을 나타내는 것인가? 여기서 後者の 理論을 分析해 보기로 하자.

「슬덴스키」는 二〇世紀農業恐慌의 性格에 對해서 『1. 今日의 農業恐慌은 1900년까지의 恐慌의 單純한 繼續이 아니다. 2. 今日의 恐慌은 오히려 世界的農業 特히 穀作地帶에 있어서의 機械의 使用에 基因하는 바의 農業의 恐慌이다. 3. 이恐慌은 不可避的이요 그前의 「데푸레손」 및 恐慌과는 何等의 關係가 없고 다만 이것에 依해서 促進되는데 不過하다. 4. 今日의 農業恐慌의 原因은 內燃發動機에 依하여 惹起된 非常한 技術的革命 있다』고 하여 農業恐慌의 特殊性을 強調하고 農業恐慌의 原因으로서 生産條件의 變化를 들고 있다. (Studensky, Entwicklungslinien der landwirtschaftlichen Weltproduktion 1930) 即 「슬덴스키」는 二〇世紀農業恐慌을 過剩生産恐慌이라고 보고 그것은 工業品과 農産物과의 價格의 乖離를 惹起시킨 國際的 「데푸레손」의 直接結果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慢性的 不景氣의 性質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

「류보시프」는 農業에 있어서의 資本主義進化의 特殊性에 農業의 後進性을 連結시켜 農業에 있어서의 生産力發達は 利潤에 依해서 制限될뿐만 아니라 地代에 具體化되는 土地所有의 獨占에 依해서도 制限된다는 點을 指摘하여 長期農業恐慌의 原因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即 「農産物の

過剩生産은 農業의 社會的特殊性——地代까지도 包含하는 固定費用率이 較的 높다는것 小農經營群을 原因으로 하는 歷史的後進性等——으로 因하여 長期間 繼續하는 것이거니와 資本에 依하여 條件지워지는 이農産物의 過剩生産을 背景으로 하여 農業生産力の 發達과 配置의 新段階를 反映하는 바의 새로운 價値 및 價格關係와 낮은 地代關係와의 사이에 紛爭이 演出된다. 이紛爭이 長期에 亘하여 解決되지 않기 때문에 農業恐慌의 資本主義的解決은 오래 持續하는 것이요 農業恐慌이 工業恐慌에 比해서 長期性을 維持하고 週期的工業恐慌과는 相異한 特殊性을 가지는 原因은 거기에서 由來하는 것이다』라고. 地代의 固定化와 그重壓 그리고 많은 小農經營의 存在가 農業恐慌의 回復을 늦추는 原因이라고 하는것은 이미 周知의 事實이다. 그런데 「발가」는 『世界資本主義農業에 있어서 支配的인 것은 農業生産者도 또한 資本에 從屬되고 各種의 方式에 依하여 搾取된다고는 할지라도 或은 資本家의 大規模農業企業이 農業經營보다 높은 費用이 所要된다고는 할지라도 그것은 窮極에 있어서 單純商品生産 및 自家消費을 爲한 生産이라는 點이다. 農業에 있어서의 資本의 有機的構成은 極히 낮다. 固定資本 即 再生産의 循環的進行의 物質的基礎의 役割은 工業에 있어서 보다는 顯著하게 微弱하다』는 것을 指摘하고 地代의 存在와 함께 小農經營의 優越 및 固定資本의 貧弱이 農業恐慌의 長期性的의 決定的 要素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발가」는 여기에 있어서 小農經營의 優越을 數的優越로서가 아니라 經濟的優越로서 理解하고 있거니와 이것은 歷史的 事實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류보시쓰」는 批判하고 있다. 「발가」의 小農經營의 優越 및 固定資本의 微弱이라는 點에 對해서 栗原百壽註¹⁵도 다음과 같이 反對의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첫째는 單純商品生産者는 私的分業段階에 있고 그生産手段을 私有하면서 自己의 勞動生産物을 占有한다. 따라서 그러한 單純商品生産이 量的 優越이 아니고 結濟的優越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資本主義의 恐慌의 窮極的原因인 社會的生産과 私的占有와의 矛盾은 農業에는 存在하지 않는것으로 認識될수있기 때문에. 農業部門은 資本主義의 恐慌을 惹起시키는 構成部分일수는 없다. 따라서 「발가」의

第一理由是 論理的으로는 「팔가」와는 反對로 農業恐慌의 不可能性을 立證하는것에 不過하다. 둘째는 「팔가」는 固定資本의 更新을 再生産의 循環의 進行의 基礎로서 把握하고 있기 때문에 固定資本을 無視하지 않고서는 農業恐慌의 長期性을 立證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故로 「팔가」는 固定資本의 微弱性을 云謂하는 것이다. 그러나 固定資本의 更新에 依한 景氣의 循環이라고 하는 것은 資本主義社會의 總經濟過程 資本主義經濟의 全般에 있어서 비로소 이러나는 것이요 恐慌이 資本主義經濟의 全「메카니즘」와의 關聯에 있어서 發生하는것을 表示하는 것이다. 「팔가」와같이 個別的인 部門의 固定資本의 強弱이 各其 그部門의 恐慌의 強弱이나 相異하는 週期性을 만들어 내는 根據가 될수는 없다. 따라서 固定資本의 微弱 이라는 것도 農業恐慌의 週期性的의 缺如를 證明하는 論據가 될수 없을뿐 아니라 그 強調는 오히려 農業部門에 있어서의 恐慌發生의 根據까지도 否定하는 結果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팔가」의 이러한 狀態에 있어서의 農業恐慌은 一般的 週期的 恐慌의 農業에의 波及으로서의 農業恐慌以外的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런데도 不拘하고 「팔가」는 農業恐慌의 循環性缺如의 理由로서 1. 「빵」의 社會的消費高는 工業循環의 進行狀態로 부터 極히 작은 影響을 받는데 不過하다. 2. 穀物生産은 大略 一年을 要한다. 3 農業生産費안의 固定支出이 工業보다 훨씬 높다. 4. 分散的인 農業生産에 있어서는 價格引上等의 生産減少가 不可能하다. 5. 農業은 生産期間이 길고 景氣가 좋다고 해서 곧 生産擴張이 되지 않는다 하는 點을 들고『工業과 農業에 있어서의 景氣循環의 動態는 전혀 다르다』 그런故로 農業恐慌을 工業循環의 恐慌局面과 同一視하는 것은 誤謬이다』라고 하여 工業恐慌의 農業部門에의 波及을 否定하고 있다. (註16) 이리하여 「팔가」의 農業恐慌理論은 論理的으로 波綻하는 것이다.

그러면 「류보시쓰」의 長期農業恐慌論은 어떠한 것인가? 「류보시쓰」는 「팔가」의 慢性農業恐慌論을 批判하여『「팔가」의 慢性的農業恐慌論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理論을 定說시키는 것이다. 即「팔가」가 結局에 있어서 蓄積과 社會의 消費力과의 矛盾으로 부터 說明하고 蓄積은 恒常的인 過剩

生産과 一致한다는 見解에 서는限 이것은 二〇年代 (「팔가」는 資本主義의 全歷史上에 있어서 眞正한 農業恐慌은 다만 두번 밖에 없었다하고 그 하나는 一九世紀의 最後의 四半期の 그것이요 다른 하나는 二〇世紀의 第一次世界大戰后의 農業恐慌이라고 하고 있다.)의 農業恐慌에 對해서 「定期的으로 反復되는 過剩生産은 資本主義的生産의 特徵이거니와 이 定期的過剩生産은 沒落期에 있어서는 慢性的過剩生産으로 轉化하는 傾向을 가진다. 卽 現在의 農業恐慌은 工業循環의 하나의 現象이라고 보아서는 안되며 資本主義의 一般的危機의 一構成部分으로서 보아야 할 일이다」註17라고 說明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을 意味한다[고. 이리하여 「류보시쓰」는 「팔가」의 慢性恐慌論을 小農民經營의 恒久的인 沒落과 破滅의 過程을 隱蔽하고 있다는 點 農業恐慌의 進行過程에 있어서의 過度한 過剩生産의 瞬間을 否定하고 있는 點 農業恐慌을 農民經營의 危機에 解消하고 恐慌의 基本的要素 卽 資本主義의 基本的인 矛盾에 依하여 制約되는 過剩生産을 抹殺하고 있는 點을 들어 批難하고 「팔가」와 相異하는 長期農業 恐慌의 範疇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卽 「류보시쓰」는 資本主義의 循環 및 工業과 農業과의 相互關係에 있어서의 機械工業의 指導的役割을 認定하여 長期農業恐慌의 範疇는 週期的經濟恐慌의 農業에의 波及으로서의 農業恐慌과는 別個의 存在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注意할것은 「류보시쓰」는 二〇世紀農業恐慌을 一旦 長期的農業恐慌이라고는 보지마는 連續的인 深刻한過剩生産恐慌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하는 點이다. 換言하면 工業의 好景氣時期 및 資本主義의 部分的安定期를 그時期에 있어서는 農業恐慌은 弱化되고 緩和되어 停滯的인 過剩生産으로 移行하기 때문에 이미 深刻한 危機의性格을 띠우지 않는 緩和段階라고 認識하는 點이다. 그는 緩和段階의 特徵으로서 1924—28年の 例를 들어 價格의 保合 그낮은 水準과의 比較에 있어서의 農產物價格의 若干의 騰貴 價格差의 收縮 農業總收入 및 貨幣收入의 最低點과의 比較에 있어서의 若干의 增大 및 安定 資本主義的大經營에 있어서의 새로운 農業技術의 導入의 比較的 迅速한 增加 農業生産의 어느 程度의 增加等を 指摘하고 他面 農民의 收入 및

支出에 있어서의 農業의 損失 農民의 大量的收奪과 沒落에 依해서 農業恐慌은 克服된것이 아니라 緩和된데 不過하다고 하는 것이다.

「라시첸코」도 「팔가」와 같이 單純商品生産이나 自家消費生産에서 부터 出發하지 않고 資本主義的農業의 特殊한 諸條件 및 諸特徵에서 부터 出發하여 「팔가」 보다는 一步앞선 解決을 내리고 있다. 「라시첸코」는 農業에 對한 工業循環의 影響 工業의 指導的役割을 是認하고 同時에 『農業恐慌의 發生原因과 行程과를 全히 工業恐慌에 依存시킨다고 하는 것은 큰誤謬이다. 農業恐慌은 그襲來와 終熄에 있어서 그自體의 原因과 根據를 가지고 있다고 하므로서 農業恐慌의 獨自的인 發生과 發展을 主張한다. 그가 말하는 獨自的發展이란 週期性的 缺如를 意味하는 것이며 그根據로서 農業技術의 後進性 (固定資本의 微弱性)과 土地私有制의 阻害的役割等을 들고 있다. 그러나 「라시첸코」는 工業의 指導的役割을 專히 價格形成過程 流通過程 面에서만 把握하고 『農業에 있어서의 擴大 再生産過程은 農業資本主義의 成長에 따라서 工業에 있어서의 再生産過程과 漸漸 緊密하게 結付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여 農業恐慌을 工業恐慌의 波及으로서의 觀點에서 보고 農業恐慌襲來의 스스로의 原因과 根據를 否定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指摘할수 있는 것은 「류보시쓰」가 緩和段階의 諸指標의 하나로서 들고 있는 資本主義的大經營에 있어서의 새로운 農業技術의 導入 (固定資本의 更新)은 農業恐慌의 어느 程度의 回復을 가장 잘 나타내는 指標라고 생각할수 있다는 點이다. 景氣回復期에 있어서는 다만 새로운 工業企業의 大量的組織이나 設備가 行해지는 것 뿐 아니라 새로운 技術에 依한 舊은 企業의 設備改造가 行해진다고 할진대 市場에 있어서 經濟的優越을 나타내는 資本主義的大經營의 固定資本의 更新은 恐慌의 單純한 緩和라고 하기 보다는 一棼의 回復을 明白하게 表示하는 것이 아닐 것인가? 따라서 農業恐慌의 回復은 工業의 好景氣와 함께 到來하는 것이라고 할수있을 것이니 二〇世紀農業恐慌에 關한 限 長期農業恐慌과 週期的 農業恐慌과의 差異는 없어질 것으로 믿어진다. 그리고 「라시첸코」도 農業恐慌襲來의 스스로의 原因과 根據를 否定하는 限 그가 말하는 獨自的인 農

業恐慌도 一般的週期的恐慌의 波及으로서의 週期的農業恐慌과 같은 것을 意味하는데 不過한 結果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 × × ×

以上에 있어서 明白한 바와 같이 二〇世紀의 農業恐慌에 있어서는 大工業의 指導的役割을 肯定하는 限 農業恐慌의 長期性이나 獨自性を 無條件으로 主張할 수는 없다. 그러나 問題는 이것으로 決코 解決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왜 農業恐慌의 特殊性(週期性的의 缺如)이 云謂되는 것일까? 우리는 農業 그自體의 本質안에서 이것을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A. 農産物에 對한 需要는 一般的으로 彈力性이 貧弱하다. 가장 重要한 生活資料 特히 「糧」等の 主食物에 對한 需要는 거의 確定되어 있기 때문에 恐慌時에 있어서는 그다지 減少하지 않고 또 好景氣時代에 있어서는 別로 增加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에 比하여 高價의 食料品 또는 加工原料品等은 景氣變動의 影響을 받음이 많은 것이다.

B. 農業에 있어서는 固定支出 即 生産量에 關係없이 支出되는 地代 機械의 修理 및 償却費 飼糧 租稅等이 工業에 있어서 보다는 훨씬 많다. 따라서 農産物의 價格이 下落한 境遇라 할지라도 工業에 있어서와같이 生産制限을 行하지 못한다. 現今의 土地私有制度下에 있어서는 農業資本의 大部分은 土地購入이나 農舍의 建築費에 充當된다. 이러한 것들은 一時의 不景氣에 依해서 拋棄될 수는 없는 것이며 同時に 이것은 또 景氣에 對해서도 極히 愚鈍한 것이다.

C. 農業에 있어서는 生産의 開始로부터 收穫物이 販賣되기 까지의 時期의 길이가 工業에 比해서 보다 크다. (註18) 이러한 事情은 市場의 景氣에 應하여 生産을 伸縮하는 것을 妨害하는 것이다.

D. 農業은 多數의 小規模生産單位로 부터 成立하고 있다. 그리고 運輸加工 仲間商人에 依해서 終局消費者로부터 隔離되어 있기 때문에 協力하여 生産制限을 行하고 市場에 있어서 支配力を 發揮하기가 不可能하다.

E. 農産物生産의 非彈力性を 勞働供給의 性質에 依해서도 促進된다. 小農에 있어서의 勞動力의 大部分은 家族勞働이기 때문에 農産物의 價格

이 下落한 境遇에 있어서도 勞動을 短縮하는 것에 依해서 生産制限을 行할수 없고 오히려 勞動投下를 增加하는것에 依하여 生産을 올리고 價格下落에 依한 損失을 補充하려고 努力하는 것이다. (註19)

이러한 諸特殊性에 依하여 農業生産은 工業生産과 같이 生産의 伸縮을 行하지 못하고 따라서 農業恐慌은 不景氣의 形態를 取하면서 緩慢한 進行을 持續하는 것이며 그週期性도 一般恐慌과 같이 明瞭히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農業에 있어서의 技術的性質上 資本의 再生産循環이 工業에 있어서와는 全然 다르다 하는 點 農業에 있어서는 生産資本 (役蓄 肥料 種子)의 一部를 自給한다는 點을 그理由의 하나로 함도 勿論이다. 그러나 이렇게 解釋한)다고 해서 一般恐慌과 農業恐慌과의 聯關性을 否認하는 것은 아니다.

元來 農業과 工業과는 市場을 通하여 다음의 네가지 關係에 있어서 서로 交渉한다. 卽 農業側으로 부터는 1. 生産手段으로서의 工業品을 需要하고 2. 消費目的을 爲해서 또한 工業品을 需要한다. 工業側으로 부터는 3. 原料로서의 農産物을 需要하고 4. 生活資料로서의 農産物을 需要하다. 一般景氣가 上昇할 境遇에 있어서는 農業原料品에 對한 需要가 增加하고 따라서 그 價格은 騰貴한다. 工業原料品으로서의 農産物은 그再生産行程中에 있어서 迅速히 回轉되어 지기 때문에 加工品の 形態에 있어서 가장 敏活하게 一般의 購買力의 影響을 받는다. 그런故로 農業原料品の 價格은 一般的 傾向으로서 他의 工業品인 生産財에 比해서 景氣上昇의 境遇에는 가장 急速히 騰貴하고 恐慌期에 있어서는 가장 急히 下落하는 것이다. 農民은 또 生産手段으로서의 人造肥料 및 農業用機械를 購入한다. 農業機械는 比較的長期에 亘해서 使用되기 때문에 好景氣時에 購入한 機械의 償却費는 農産物價格 下落時 따라서 收益低下의 境遇에는 農民에게 큰 苦痛을 주는 것이요 나아가서 農業의 不景氣가 長期間 繼續한다고 할때에는 이러한 生産用具에 對한 需要가 減退함은 勿論이다. 그러나 一般工業의 發達에 따라서 農業生産手段인 工業品の 價格은 漸次 下落하는 傾向을 가지는 것이므로 農業生産費用의 增加는 他의 費用項目인 地代 勞賃 土地資

本利子等에 比하여 그다지 重要性을 띠우는 것은 아니다. 食用農產物에 對한 需要 特히 穀類에 對한 需要는 彈力性이 작다. 이것에 比해서 高給食料品의 需要는 그彈力性이 比較的 크기 때문에 園藝的農業經營은 一般恐慌에 對하여 가장 敏感하게 影響을 받고 打擊을 입음도 많은 것이다.

農民의 工業製品에 對한 需要減退는 農業恐慌時에 顯著히 나타난다고 할때 그것은 一般恐慌을 한層 惡化시키고 一般景氣上昇을 妨害하는 結果를 가져 온다. 따라서 農業恐慌은 앞에서 指摘한 네가지 關係를 通해서 一般恐慌과 交渉한다. 그런데 既述한 農業의 特質로 부터 生産의 伸縮이 迅速하게 行해지지 않는다는 것에 依하여 이러나는 農產物과 工業品과의 價格差(Shere)가 農民에게 더욱 많은 苦痛을 주고 이것이 農業恐慌을 特殊化시키는 것이다. 一般景氣變動時에 있어서 農產物價格과 工業品價格이 그리는 波動的運動의 週期 兩者의 價格差의 問題야 말로 今後의 農業問題를 解決하는 關鍵이다. 「콘도라체프」는 이것을 兩生産部門에 있어서의 生産力發展程度의 如何로 부터 求하려고 하지만 그가 말하는 農業과 工業의 生産力이라고 하는것은 兩部門의 國民所得을 一般物價指數로서 除하고 다시 各其 兩部門의 總從業者數를 가지고 除한것을 意味하는 것인데 (註20) 그러한 것이 具體的으로 正確하지 農工의 生産力을 表示할수 있는 것인가는 問題이다.

農業生産의 結果는 天候에 依하여 影響을 받음이 많다는 것에 依해서 收穫의 豐凶을 가지고 農業恐慌을 特徵지우는 要件이라고 보는 見解가 있다. 收穫의 豐凶이 農業恐慌의 要件이 될수있는가의 問題는 그나라의 主要農產物이 世界的商品인가 또는 그消費가 一國에만 限定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性質을 달리 한다고 보여진다. 前者의 境遇에 있어서는 豐凶은 世界的으로 相殺되기 때문에 假令一時的恐慌을 惹起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決코 永續性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스토라곱슈」가 말하는 僞恐慌(Pseudo krisen)이라고 부르는 것이 適當할 것이다. 그런데 後者の 境遇에는 收穫의 豐凶은 그價格에 큰影響을 주고 따라서 農業恐慌을 惹起시키는 可能性이 있다. 即 自然의 運行에 影響을 많이 받는 有機的生産인

農業은 自然現象의 如何에 依해서 農業生産의 結果가 左右되고 作物의 收穫에 豊凶을 가져온다. 收穫의 豊凶은 必然的으로 그價格을 騰貴 或은 下落시키고 나아가서 農業生産者의 購買力을 萎縮하여 農業의 恐慌을 結果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境遇 收穫의 豊凶만이 農業恐慌을 가져오는 絶對的條件이 될수 없고 그것은 一般的不景氣의 事情을 背景으로 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點에 對해서는 「제본스」, 「무아」, 「피구」 등의 學說이 있거니와 (Moore, Economic cycles: Their law and cause. 1914. Pigou, Industrial fluctuations. 1927) 一國이 工業國으로 옮겨지고 農業이 全國民經濟에 있어서 役割하는 程度가 적으면 적을수록 收穫은 一般景氣에 影響하는 바가 적은 것이다.

× × × ×

(註11) V. Dietze, Die Gegenwärtige Agrarkrisis. 1930

(註12) Liaschtschenko, Zur theorie der Kapitalist-ischen krisen in der Landwirtschaft. 1931

(註13) Strakosch, wesen und Bekämpfung der internationalen Agrakrise. (Berichte über Landwirtschaft. 1930)

(註14) Studensky, Agricultural depression and the technical Revolution in farming. (Journal of farm economics. 1930)

(註15) 栗原百壽, 「農業恐慌講座」(新らしい農業, 1950.5—12月)

(註16) } 「팔가」, 「國際農業恐慌」(世界經濟年 9報 1930)

(註17) }
(註18) Whetham, The Economic lag of agriculture (The Economic journal. 1925)

(註19) Pelshaw, The profit cycle in agriculture. (The Economic journal. 1926)

Seligman, The Economics of farm relief. 1929

(註20) Kondratieff, Die preisdynamik der industriellen und Landwirtschaftlichen waren. (Archivfür Sozialwissenschaft und Sozialpolitik. 1928)

三. 一九世紀農業恐慌의 特殊性

여기서 우리는 農業恐慌의 特異性을 다시 具體的으로 解明하기 爲해서

農業恐慌理論의 歷史的基礎라고 할수 있는 一九世紀農業恐慌에 對한 論者들의 根本思想을 分析해 보기로 할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一九世紀 農業恐慌은 地代없는 美國農業 貧窮한 農業生産條件下에 있고 그나마도 商品化하지 않으면 안되는 露西亞 印度의 農業과 地代の 重壓에 呻吟하는 歐洲諸國의 農業과의 競爭에 依하여 惹起되었었다. 따라서 이恐慌에 있어서의 問題點은 資本主義의 基本的諸矛盾에 依해서 나타난 眞正한 農業恐慌으로 볼수있을 것인가 하는 點이다.

「제-링구」(M. Sering) 「스덴스키」는 말할것도 없고 「발가」·「라시첸코」·「류보시쓰」等도 이것을 農業恐慌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제-링구」는 一九世紀農業恐慌을 未墾地의 開拓速度를 가지고 「발가」는 交通手段의 革命을 가지고 說明하고 있고 「스덴스키」·「류보시쓰」·「라시첸코」는 英國의 産業革命에 依하여 促進된 巨대한 機械의 發展 따라서 資本主義蓄積의 全般的作用으로 부터 說明하고 있다.

「제-링구」는 『農産物價格은 資本主義經濟組織下에 있어서의 工業品價格과 같이 規則的循環 및 遞減的價格景氣에 依하여 支配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天候에 依해서 左右되는 바의 收穫에 따라서 變動한다. 그런데 大體에 있어서 農産物의 價格變動은 一方에 있어서는 未墾地의 開拓速度 如何에 關係하고 他方에 있어서는 그購買力을 높이거나 낮추는 工業의 經濟狀態를 變化시키는 바의 歷史的事情에 關係한다』(註21)고 하고 世界的農絲發展을 說明하기 爲해서 所謂「리카-드」의 收穫遞減法則을 引用하여 이것을 農産物購買力增加의 法則 (Gesetz von der wachsenden kaufkraft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nisse)이라고 부르고 있다. 即 그는 農産物價格構成이 이法則에 따를 境遇 그것은 正常狀態라고 할수 있으며 一九世紀의 農業恐慌은 이法則에의 妥當性을 가지는 것이 못되므로 그것은 恐慌形態以外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제-링구」는 이恐慌의 原因을 美國西部의 穀作擴張에 依하여 惹起된 穀作集約化의 停止. 따라서 收穫遞減法則의 不作用의 事情에 돌리고 있다. 「제-링구」는 『農産物이 工業品에 比하여 그購買力을 對等하게 支持한다 할지라도 그價格構成은

國民經濟上 正常的인것으로 看做할수는 없고 오히려 前述한 農業恐慌의 發生以前 또는 그終結以後에 있어서 農產物購買力增加의 傾向이 나타날 때 비로소 그것을 正常的狀態라고 부를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工業的 原料加工에 對해서는 經濟的技術進步에 何等の 限界가 存在하지 않는데 反하여 一定面積에 있어서의 動植物의 有機的生活體의 增加는 他의 事情에 同一하다면 比例以上の 勞動 및 資本財의 支出에 依하여 條件지워지기 때문이다. 그런故로 農業生産의 集約化는 農產物의 交換價値의 騰貴에 依해서 이터난다고 할수있는 일이지마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農產物에 對한 絶對的價格騰貴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農業生産財 및 農民의 工業的消費財의 價格을 低下시키는 것에 依해서 農業生産費를 增加시킴이없이 農業生産을 增進토록 하는 것은 工業의 任務이다』『上述한 期間(一九世紀農業恐慌期間)에 있었서의 不正常的 價格狀態의 出現은 未墾地開拓의 急速한 進展에 나아가서 新開地의 粗放經營의 擴張에 基因하는 바로서 1860년에 있어서의 小麥栽培面積은 650萬「헥타」였던 것이 1880年과 1900年에는 各各 1,400萬 및 1,720萬「헥타」로 增加한 事實은 이것을 立證하는 것이다』라고 說明한다.

이러한 「제-링구」의 見解에 對하여 「슬덴스키-」는 『첫째 「제-링구」의 理論은 事實과 一致하지 않는 點이 있다. 왜냐하면 農業의 集約化와 粗放化라는 것은 多數의 地方에 있어서 全然 同時에 이터나는 現象이요 農業의 集約化는 農產物購買力의 增加를 無條件으로 前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는 農業生産 및 農產物의 價格發展은 未墾地開拓의 速度로 부터 說明되지 않는다. 小麥栽培의 擴張은 1875 乃至 1900年의 農業恐慌의 原因일수는 없고 오히려 그隨伴現象이다. 眞正한 原因은 前世紀後半에 있어서 美國의 農業을 根本적으로 變革시킨바 있는 英國産業革命에 依하여 促進된 巨大한 機械發展에 있다. 前世紀의 560年代의 美國의 工業化는 처음에는 國內市場에 있어서의 農產物의 販路를 開拓하였고 다음에 鐵道 海運의 完成과 함께 世界市場에 있어서의 그販路를 開拓하였다. 그런데 如斯한 發展은 農業의 同時的技術革命 없이는 이터나지 않았을 것이

다』라고 主張하면서 다음과같은 統計를 表示하고 있다. (註22)

年 次	農產物總產額 指數	年 次	耕地面積 指數	備 考
1866—1875年	100	1870年	100	
1876—1885年	159	1880年	131	
1886—1895年	204	1890年	153	
1896—1905年	233	1900年	206	

이表에 依하면 農產物의 總產額은 耕作面積보다도 增加하고 있는데 이것에 依해서 農產物增加는 「제-링구」가 말하는 바와같이 農業의 集約化를 犧牲시킨 新開地의 粗放的開拓에 依해서만 이러나는 것이라고는 解釋되지 않는다고 「슬덴스키」는 말하는 것이다.

「류보시프」의 見解에 依하면 一九世紀農業恐慌은 『보다 發達한 歐洲의 資本主義諸國에 있어서의 資本主義的蓄積의 全般的作用은 歐洲資本의 美國輸出과 歐洲勞動者의 美國移住의 不絶의 흐름에 依해서만 그리고 그렇게 行해진 바의 美國에의 急速한 移民과 美國의 急速한 農業發達에 對해서 가장 直接的인 關係를 가지고 있었다. 歐洲資本의 輸出과 過剩狀態의 勞動者의 強制移民은 資本主義歐洲에 있어서의 資本蓄積의 矛盾의 結果에 不外하였다』고 하여 歐洲의 資本蓄積의 結果로서의 美國農業의 發達과 歐洲大陸의 大衆의 貧困化를 結付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觀察한다고 한다면 「제-링구」와 「슬덴스키」 그리고 「류보시프」의 立論의 根據는 다르다 할지라도 歐洲에 있어서의 失業者의 繼續的增加 資本利子の 騰貴 租稅負擔의 增加 外債負擔等資本主義蓄積의 全般的作用과 大衆의 貧困과 增大하는 世界市場의 그것에 由來하는 相對的制約化에 있어서 美國農產物에 依한 世界市場의 氾濫이 일어났다는 意味에 있어서의 過剩生産恐慌이라고 보는 點에 있어서는 同一한 것이다.

「제-링구」·「류보시프」는 이러한 農業恐慌의 長期性を 小麥價格의 長期的低落到 依하여 立證하고 있다. 即「류보시프」는 小麥價格의 長期的低落을 過剩生産에 依한 市場價值以下에의 價格의 새로운 低落과 生産條件

의變化 그리고 美國의 土地의 規制的役割의 獲得에 依한 市場價值自體의 低落의 結合으로 부터 說明하고 있거니와 前者의 價格低下는 過剩生産時期에는 常時 나타나는 現象이요 따라서 一九世紀農業恐慌이 높은 地代를 가졌던 以前의 歐洲農業의 條件下에 決定된 낮은 市場價值水準을 前提로 한바의 過剩生産恐慌인 以上 이것은 農業恐慌의 長期性的의 要因이 될수있다. 그러나 後者에 있어서의 生産條件의 變化에 依하여 齊來된 價格低下에 새로운投資 固定資本의 更新을 包含한다. 그런故로 生産條件이 變化하고 그것에 基하여 市場價值自體가 低下하고 價格이 低落한다는 것은 過剩生産恐慌에 依한 暴力的인 價格低下와는 別個의 것이 아닐것인가? 이런 데도 不拘하고 「류보시쓰」는 生産條件의 變化에 依한 市場價值自體의 低下를 長期的農業恐慌의 要因으로 認識하고 있는 것이다. 卽 그는 當時의 農產物價格低落의 「텐포」가 生産條件에 基하는 市場價值下落의 「텐포」보다도 常時 훨씬 컸었다고 하고 農產物價格이 生産價格以下로 低下한데도 不拘하고 地代 (超過利潤이 轉化하고 固定化한 形態)는 새로운 農產物價格에 不充分 또는 緩慢하게 密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一九世紀農業恐慌은 長期성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着過해서는 안될것은 一九世紀農業恐慌은 美國의 競爭에 依하여 마련된 農產物價格의 下落이 何等の 人爲的障害나 反對運動에 逢着함이 없이 가장 純粹한 形態에 있어서 作用한 까닭에 英國에 있어서는 農產物의 價格低落이 卽 農業恐慌이 가장 激烈했었다고 하는 歷史的特異性이다. 英國에 있어서는 國內의 過剩生産現象은 없었고 따라서 過剩生産恐慌은 穀物輸入에 依한 것이었다. 「石渡貞雄」은 英國에의 穀物輸出은 다만 資本主義的인 性質을 떠우는 것만은 아니고 印度・露西亞等の 穀物도 重大한 役割을 한것이라고 하거니와 註23) 要는 이러한 穀物の 歐洲에의 流入은 歐洲資本主義發展의 美國 「알제진」農業에의 資本投下에 依하여 惹起된 過剩穀物の 歐洲에의 殺到 또는 露西亞・印度 農產物의 窮迫輸出이 었으며 이러한 資本運動의 矛盾으로서의 過剩農產物이 歐洲의 높은 穀物價格國에 恐慌現象을 이룬 것은 事實이다.

이와같이 一九世紀 農業恐慌을 農業恐慌의 範疇로서 認定한다면 農業恐慌의 特殊性과 그基礎로서의 地代의 役割을 是認해야할 것이요 따라서 長期農業恐慌이라고 하는 範疇도 成立될수 있는 것이다.

× × × ×

(註21) M. Sering, Internationale preisbewegung und Lage der Landwirtschaft in den Aussetropischen Ländern. 1929

(註22) Studensky, Entwicklungslinien der Landwirtschaftlichen Weltproduktion. 1930

(註23) 石渡貞雄, 「農業恐慌論」 1953.

四. 結 言

以上에 亶하여 恐慌一般에 關해서 說明하였고 農業恐慌에 對한 諸學說에 論及하였다. 農業恐慌은 말할것도 없이 機械化에 依한 過剩生産과 大衆의 購買力減少로 부터 發生하는 農產物 需要減退換言하면 資本主義的 領有와 社會的 生産과의 사이의 矛盾 即 資本主義 生産能力의 巨대한 增大와 資本主義가 그 生活水準을 不絶히 極端的인 最低限에 머물게 하려는 大衆의 有效需要의 相對的減少와의 사이의 矛盾에 基因하는 것이다. 이러한 農業恐慌의 進行中에 있어서 農產物價格의 下落이 特히 農民에게 큰 打擊을 주는것은 勞賃 運賃 販賣費用 租稅 地代 農民이 購入하는 工業品 등이 農產物의 價格에 比하여 훨씬 緩慢한 下落의 行程을 걸기 때문이요, 兩者사이에 價格差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事情下일지라도 技術的進步를 利用할수있는 大經營과 그렇지 못하는 小經營과는 그받는 影響을 달리함은 勿論이다. 即前者에 있어서는 農業의 機械化에 依하여 農產物價格下에 있어서도 生産費를 低下하는 것에 依해서 生産擴張을 할수있을 것이기에 그렇다면 小經營은 必然的으로 沒落의 運命下에 있는것일까? 「디-체」(Dietze)는 말한다. 『五十年以前の 農產物收穫의 増加는 家産所有農民의 處女開拓에 依하여 行해졌었다. 今日의 그것은 機械를 보다 잘 利用할수 있는 大經營에 依해서 이다.이 新形態의 農業經營에 있어서는 家族經營은 問題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家族經營에 있어서도

營利的打算은 徹底한 것이있다』라고. 이 小農의 營利心은 農業恐慌中 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雜農케 할것이려니와 他方에 있어서는 小農은 農業協同組合이나 共同經營에 依하여 恐慌에 對抗해 나갈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나이것은 恐慌의 一時的克服을 意味하는 것이다. 萬若에 資本主義가 生産을 利潤의 獲得에만 適應시키지 않고 大衆의 物質的狀態의 改善에도 適應시킨다고 할때 또 資本主義가 利潤을 資本家階級の 貪慾에 搾取方法의 改良에만 充當시키지 않고 農民의 物質的生活의 體系的인 向上에도 充當한다고 할때 그때에는 恐慌은 永遠히 克服될 것이리라.

오늘날 우리가 經驗하고 있는 農業恐慌은 先進資本主義諸國의 大經營이 穀價의 下落에도 不拘하고 生産低下에 依하여 穀産을 繼續하는 限 穀價의 上昇은 容易하지 이것을 期待할수 없을 것이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農業恐慌은 今後 長期間 慢性狀態를 維持할것으로 믿어진다.

——(끝)——

參 考 文 獻

1. Levin, Agrarkrise in Frankreich. 1928.
2. Jasny. Die neuzeitliche umstellung der überseeischen getreideproduktion und ihr Einfluss auf den weltmarkt. 1920
3. Edwin R. A. Seligman, Economics of farm Relief. 1929.
4. Ritter, Die eigentliche ursache der weltwirtschaftskrise. 1929.
5. 八木芳之, 「世界の食糧問題」經濟論叢 30卷3號
6. Mitchell, Business cycles, the problem and its setting. 1930
7. 非汲卓一, 「農業恐慌論」1949.
8. 近藤康男, 「農業經濟研究」1954.
8. 大門力, 「農業問題」1951.